

문제를 받고 작성까지

1. 확인하기 - 생각하기

문제를 풀 때, **발문을** 먼저 확인하는 것처럼, 주어진 **논제가 어떤 유형인지 확인한 후, 제시문들을 속독**합니다. 처음부터 제시문들을 완전하게 이해해버리겠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저는 권장하지도 않습니다. 대강 어떤 유형의 제시문이 나왔는지 이 제시문이 문학인지, 설명하는 글인지, 주장하는 글인지. 혹은 중심 제재가 무엇인지만 파악할 정도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가능하다면 제재를 바탕으로 제시문과 논제를 아우르는 제목을 정해보세요. 이 제목은 제시문 독해 시에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이정표의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2. 읽기

이제 논제들이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때 **논제를 각 파트 별로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라)의 논지를 활용해 제시문 (마)에 나타난 ‘침묵으로 시작하는 인디언들의 대화 방식’이 갖는 긍정적 효과를 서술하고, 이러한 대화 방식이 제시문 (바)의 ‘프레이밍 효과’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2015 중앙대)

- (마)의 인디언들의 대화 방식의 형식적 특성 및 배경 파악
- (라)의 논지 파악
- (라)를 바탕으로 (마)의 긍정적인 면 설명
- (바)의 문제점 도출
- (마)를 바탕으로 (바)의 문제점 완화 가능 이유

위와 같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논제의 요구 사항을 파악한 뒤, 제시문 정독에 들어가야만 오독의 가능성을 줄이고 답안 작성 시에 논점 이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독해는 세 단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표면 독해, 정리 독해, 세부 독해.

아니라면 자신이 편한 방법대로 독해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 오독이 일어날 가능성을 최소화하며 읽어 가시는 게 관건입니다.

3. 계획하기 - 개요 쓰기

이제 2단계에서 했던 논제 분석에 따라 논제를 해결하고 답안의 개요를 작성해야 합니다. 논제의 해결은 논제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요약(요지 파악), 비교, 비판 등등 각자의 접근법이 존재합니다.

개요작성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글이 학술적 글이든, 창의적 글이든,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친구들과 가르친 학생들 중, 시험장에서 논제를 다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인문 수리논술을 제외한다면 말이죠. 시험장에서 수험생 여러분들은 초인적 힘을 발휘합니다. 100분, 120분 내에 1500자, 2000자에 달하는 긴 답안을 전부 작성해냅니다. 그러니 시간을 남기겠다며 개요를 작성하지 않고 바로 서술에 들어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몇 분을 남기느냐가 아니라 답안의 완성도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든지, 답안이 조잡하다면 떨어집니다. 빨리 쓰는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시간은 충분하니 답안의 완성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답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개요입니다.

개요의 작성 방법으로는 화제 개요와 문장 개요 두 방법이 있습니다. 화제 개요는 핵심 단어나 문장을 나열하는 방법입니다. 수능 국어영역의 작문 문제에 나오는 <보기>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제문 : 학교에 옥외 쉼터를 조성하자.

I. 서론 : 학교 휴식 공간의 실태와 문제점

II. 본론

1. 조성의 필요성

가. 학생들의 여가 활용 시간 부족

..... ㉠

나. 자연 친화적 성격의 공간 요구

(2010 수능)

한편 문장 개요는 자신이 쓰려는 내용을 문장으로 최대한 쓰는 것입니다. 각 문장마다 번호를 붙여 쓰는 것이죠. 한 문장에 30~55자라고 친다면, 400자 논제는 8~10문장으로 해결될 겁니다.

- ①<제시문 1>에 나타난 죄책감의 역할은 두 가지이다.
- ② 죄책감의 원인이 되는 일을 멈추도록 하는 것과 잘못된 일을 바로잡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 ③ 이와 같은 두 가지 순기능으로 <제시문 2>의 주인공이 처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처한 상황에서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기회주의적인 삶의 방식을 생활의 중요한 원칙으로 여긴다.
- ⋮
- (2016 한국외대 수시모집 논술전형 setII 예시답안 申)

저는 화제 개요보다는 문장 개요의 사용을 더 추천합니다. 화제 개요의 경우 대부분은 자신이 무엇을 쓰려 했는지 잊어버립니다. 한 문장이나 몇몇 단어 같은 파편적 정보를 가지고 글을 쓸 때에는 문장 표현에 있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하기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표현에 걸리는 시간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죠. 반면 문장 개요는 각 문장 별로 서술 내용과 표현 방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한 번 서술된 내용을 그대로 답안에 옮겨 적는다는 생각으로 답안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문장 개요는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옮겨 적을 때, 표현상 큰 고민 없이 옮길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 2와 3을 논제의 수만큼 반복

한국외대 논술의 경우 총 4문항이 나옵니다. 1, 2번 문항이 한 세트. 3, 4번 문항이 한 세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세트에 속하는 문항끼리는 연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2, 3단계를 거친 뒤에 두 문항의 실제 서술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2번의 문장 개요 작성 → 1, 2번 서술

3, 4번의 문장 개요 작성 → 3, 4번 서술

이런 과정은 퇴고에 걸리는 시간을 없애줍니다. 사실 현행 대입 논술에서 퇴고는 불가능하며 불필요합니다. 시간제한 내에 제시문을 독해하고 논제를 풀고 2000자를 작성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어려운 일입니다. 3단계에서 문장 개요를 추천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내용상 오류를 사후적으로 잡아내기보다는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프레이밍 효과라든지 확증 편향이라든지 하는 장애물들이 우리의 유연한 사고를 방해합니다. 한번 작성된 오류는 고치기 더욱 어렵다는 겁니다.

4. 실제 작성

이제 실제 작성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개요를 검토하며 답안에 옮겨 적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표현상 오류나 논리적 오류가 문장 개요에 내에 존재하는지 검토하며 옮겨 적기 바랍니다. 아마 실제 작성은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짧으면 5분. 길어도 15분 내에 끝내야합니다.

가끔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이 글씨체에 대해 묻곤 합니다. 자신의 답안지가 너무 가독성이 떨어져 읽다 지친 교수님들이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진 않을까 하면서요. 그러나 실제 교수님들은 여러분보다 더한 악필들을 마주칩니다. 점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답안의 깊이와 넓이, 맞춤법과 학교에 따라서는 글자 수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더욱 자세한 것들은 각 학교의 논술 가이드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해 방법론

낮선 소재의 긴 글을 처음 읽는다면 누구든지 이해하기 어렵기 마련입니다. 논술 제시문은 어느 것이 나올지 모릅니다. 수능 과목처럼 우리가 연관이 있는 주제라면 이익이 될 것이며, 과학처럼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 주제라면 더 당황하고 이해하기 어렵겠죠. 하지만 이런 격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독해법입니다.

인문논술과 수능 국어영역은 주어지는 시간, 제시문의 길이와 가짓수가 다르기 때문에 읽는 방법도 다릅니다. 인문논술을 위한 효율적인 독해로 3단 독해법을 추천합니다.

단계 별 세부사항

1) 표면 독해에서는 그 글의 종류를 파악하자

이 단계에서는 글을 가능한 한 빠르게 훑어 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의 제재를 파악하고, 가능하다면 대강 주제까지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생각하는 주제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논술에서 주로 등장하는 제시문이라면 도표나 그래프와 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글의 유형이라면 크게 비문학과 문학으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비문학은 주장하는 글과 설명하는 글로 나누어지며, 문학은 시나 소설극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각 제시문이 어떤 형태인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읽는 방법이 각자 다르기 때문입니다.

① 주장하는 글일 경우 : 주장이 무엇인지에 중점을 둡니다. 주장이 있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도 존재할 것입니다. 또한 그 근거를 지지하는 사고방식 같은 근거의 근거도 또한 존재할 수 있겠지요. 이러한 것들을 2,3 단계에 거쳐서 '주장과 근거'의 형식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② 설명하는 글일 경우 : 설명하는 글들의 구조는 '사건이나 현상 소개 → 양상 → 원인 or 결과 or 전망'의 구조입니다. (항상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2,3단계 독해를 거쳐 '현상의 원인과 결과' 형식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③ 시나 소설, 극과 같은 문학일 경우 : 문학은 전체 문학의 내용보다는 주어진 부분의 내용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출제된 문학에 대해 배경지식이 있다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소설, 극과 시는 접근법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소설이나 극의 경우에는 사건이나 인물들의 관계, 사건에 관련된 그들의 감정에 주목합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제1]의 한 입장에 근거하여 <보기1>에 나타난 ‘자베르의 죽음’을 비판하시오.”

(2017 수시모집 모의논술, 성균관대)

<보기1>

몇 시간 전부터 자베르는 간단한 일도 뚜렷하게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혼란에 빠져 있었다. 아무리 곤란한 일에 부딪혀도 그토록 단순하고 명쾌하던 그의 두뇌가 혼란에 빠진 것이다. 수정과 같은 밝은 머리에 떡구름이 낀 것이다. 자베르는 자신의 확고한 의무감이 산산조각이 난 것을 느꼈고, 자기 자신한테 이 사실을 속일 수가 없었다. 뜻밖에도 셴 강변에서 장 발장과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의 마음은 사냥감을 찾은 늑대와 같은 기분과, 주인과 다시 만난 사냥개와 같은 기분을 맛보았던 것이다.

그의 입장은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것이었다. 악인에게 목숨을 구출 받고, 그 빚을 갚는다. 본의 아니게도 범죄자와 동등한 입장이 되어서, “가라!”고 말해주었던 자에게 이번에는 자신 쪽에서 그 은혜에 대한 답례로 “도망쳐라!”고 말하게 된 것이다. 자기의 양심에 충실하려고 한 것이 사회를 배신해버린 것이다. 이런 부조리한 일이 모두 현실이 되어 그를 내리눌렀다. 자기가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서 그는 몸서리쳤다. 명색이 자베르라는 이름의 그가 경찰의 모든 법규와 모든 사회적 및 법률적인 조직과 법률 조항을 완전히 어기고, 한 죄인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석방해 버린 것이다.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남은 해결책은 단 한 가지, 급히 롬 아르메 거리로 되돌아가서 장 발장을 체포하는 일뿐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무언가가 그의 길을 가로막고 서서 방해했다.

장 발장은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의 일생의 지주(支柱)가 되어 있던 공리(公理)가 하나도 남김없이 이 사나이 앞에서 무너져 버린 것이다. 여러 가지 다른 사실을 상기해보니, 전에는 거짓말이나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지금은 진실 같이만 생각되었다. 마들렌의 모습이 다시 장 발장의 등 위에 나타나, 두 모습이 서로 겹쳐져 단 하나의 존경해야 할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다. 자베르는 무언가 무서운 것이 영혼 속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범죄자를 존경하는 감정이었다. 범죄자에 대한 존경,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자 몸이 떨렸다. 그의 가장 큰 괴로움은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된 일이었다. 웬지 모르게 뿌리째 뽑혀 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가 지금까지 의존해 왔던 법전(法典)도 이제 산산조각 난 파편이 되어 남아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느껴 본 적이 없는 불안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었다. 지금까지 그의 단 하나의 척도였던 법률적인 확신과는 전혀 다른 감정적인 계시가 마음속에 끓어올랐다. 하나의 새로운 세계의 모습이 흰히 그의 영혼에 보였다. 즉, 그가 받은 자비를 갚아야 한다는 것, 헌신·연민·관용·동정이 미치는 격렬한 힘에는 위엄조차도 무너져 버린다는 것, 인간을 존중하는 것, 결정적으로 사람을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인간의 정의(正義)와는 반대로 나아가는 신(神)의 정의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어둠 속에서 미지의 도덕이라는 무서운 해돋이를 보았다. 그 해돋이가 무서워져서 눈이 아찔했다. 역지로 독수리의 눈을 갖게 된 올빼미처럼.

자베르는 암흑의 입구를 뚫어지게 응시하면서, 얼마 동안 꿈쩍도 않고 있었다. 마음을 집중시키는 것처럼, 뚫어지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물은 찰싹 찰싹 소리를 내고 있었다. 이윽고 그는 모자를 벗어 난간 언저리에 놓았다. 다음 순간, 검고 키 큰 사람 그림자가 난간 위에 똑바로 서서, 강물 쪽으로 몸을 구부렸다가 이내 다시 일어난 후에 어둠을 향해 똑바로 떨어졌다. 이어 희미하게 물이 튀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물속으로 사라진 이 희미한 그림자의 충동적인 행위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암흑뿐이었다.

주요 인물 : 자베르 경감

사건 : 장 발장을 존경하게 됨

인물과 사건의 관계 : 자베르 경감이 가진 기존의 상식을 무너뜨림.

인물의 감정 : 자베르 경감은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살했다.

시의 경우에는 화자의 상황과 감정, 태도에 주목합니다.

언제나 안개가 짙은
안개의 나라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안개 때문에	보려고 하지 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들어야 한다.
안개 속에 사노라면	[후략]
안개에 익숙해져	-김광규, 「안개의 나라」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는다.	
안개의 나라에서는 그러므로	(2017학년도 모의논술 문제, 한국외대)

화자의 상황 : 보이지 않고 안개의 나라에 있음.

화자의 감정 : 알 수가 없다.

화자의 태도 :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함. → 새로운 태도로 전환.

2) 정리 독해가 논제 풀이의 핵심이다

이번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어진 논제가 요약이든, 견해제시 유형이든, 논술 시험에서는 독해 능력이 가장 주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제시문 오독은 오답으로 곧바로 이어집니다. 논술 시험에서 평가하려는 독해 능력은 수능 국어영역에서 평가하는 독해 능력과 뿌리는 같습지만 양상은 크게 다릅니다.

그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정리 독해입니다. 국어영역 시험보다는 제시문이 더 적게 주어지고,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지기에 더 자세한 독해가 가능해 집니다. 따라서 글이 어째서 이런 논리 구조로 작성되었는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도 더욱 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야만 합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글을 읽는 도구에 대해 알려드릴 겁니다. 이것들은 외워두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낯선 방법인지라 처음에는 어려울 겁니다. 어떤 제시문이든 좋으니 천천히 하나씩 적용해가며 익숙해지세요. 반복을 통한 훈련만이 답입니다. 나중엔 따로 적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도 글을 읽어갈 수 있을 겁니다.

※ 정보 정리의 도구 - 제재에 따른 분류

① 행위의 경우

- 행위의 주체는 누구(무엇)인가?
- 행위의 배경(목적)은 무엇인가?
- 행위의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 행위의 결과는 어떠한가?
- 행위를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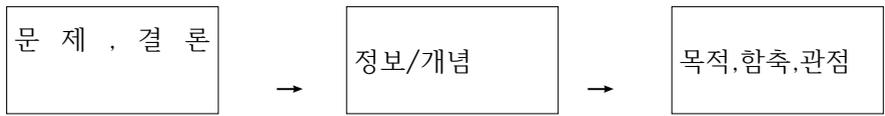
② 사건의 경우

-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가?
- 사건의 양상은 어떠한가?
- 사건의 결과는 무엇인가?
- 사건을 촉진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③ 이론의 경우

- 이론의 정의는 무엇인가?
- 이론의 실전적 예시가 무엇인가?
- 이론의 한계는 무엇인가?
- 이론의 의의는 무엇인가?

위의 도구들은 글의 제재별로 나눈 것입니다. 비판적 사고에 기반한 독해 도구들입니다. 하지만 모든 글이 위의 틀에 맞추어져 작성되지는 않습니다. 본래는 글 속에서 문제와 결론 근거를 찾고 정보와 개념을 찾은 뒤 필자의 목적, 관점, 함축을 찾아내는 것이 정석입니다. 위의 도구는 이것을 제재별로 세분화, 단순화시킨 것입니다.



완벽한 도구가 아닌 그저 도움을 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주제나 제목도 완벽하게 정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땐 그냥 그대로 적어두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3단계를 위해 남겨두는 겁니다.

3) 세부 독해에 대하여

제시문은 보통 생소하여 평소의 관점으로 보기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빈칸으로 남는 부분은 반복적인 세부 독해를 통해 알아가야 합니다.

읽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거나 어려웠던 부분에 표시를 해두고 다시 그 부분

만 읽으면서 해당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제시문 내에서 의문을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제시문을 벗어나게 되면 자의적 해석이 첨가되어 제시문 오독으로 빠지게 됩니다.

세부 독해를 여러 번 했는데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내용에 대한 물음은 과감하게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문하면 의문할수록 답을 찾아내기가 더욱 어려워질뿐더러 필요가 없는 질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